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전남 사창초등학교 2학년 이 명 진

우리 아빠는 담배를 자주 피우신다. 하시는 일이 사무실에 앉아서 우리나라 국군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한 보고서를 만드시는 일을 하시다 보니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아빠를 볼 때마다 나는 걱정이 된다. TV에서 보니까 담배는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독성이 들어 있어서 건강하게 살 수가 없다고 하는데... 아빠의 건강이 걱정된다. 아빠는 우리 집의 기둥인데 기둥이 무너지면 엄마와 우리들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마와 우리들은 아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아빠가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작전을 짜기로 하였다. 아빠가 퇴근하시기 전에 엄마와 우리들은 아빠가 사용하시던 재떨이와 집에 있는 담배를 모두 숨기기로 하고 재떨이는 소파 밑에 숨기고 담배는 옷장 서랍에 숨겨 두었다.

드디어 아빠가 퇴근하셔서 식사를 하신 뒤 늘 하시던 것처럼 거실을 두리번거리시는 것이었다. 엄마와 우리들은 담배를 찾으시는 아빠의 모습에 웃음이 나왔지만 꼭 참았다.

한참을 담배를 찾으시던 아빠께서 "여기에 두었던 담배와 재떨이가 어디 갔나?"고 하시며 나와 엄마를 쳐다 보셨다. 그때 내가 "아빠, 담배는 몸에 좋지 않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와 우리들은 아빠 뱃속에 까만 연기가 가득 차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오늘부터는 집에서 과일과 야채를 드시고 담배는 피우시지 않기로 약속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런 내가 대견하셨던지 아빠는 "명진이가 2학년이 되더니 아빠를 걱정하는 것도 배웠구나." 하시며 "아빠가 집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고 사무실에서도 담배를 줄여서 꼭 끊어 보도록 노력하겠다."며 나를 아빠의 무릎에 올려 주셨다.


그날 아빠와 엄마, 나와 동생은 거실에 앉아 딸기를 먹으며 서로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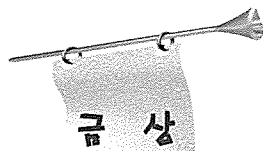
그날 이후 아빠는 집에 오시면 버릇처럼 피우시던 담배를 피우시지 않으려 무지 애를 쓰시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런 아빠를 엄마와 우리는 적극 돕기로 하고 아빠가 담배를 찾으실 때쯤이면 과일과 차를 만들어 아빠의 입에서 담배 생각이 나지 않도록 아빠 마음을 달랠다.

이제 아빠는 집에서나 우리와 같이 나들이를 하는 동안에 담배를 찾지 않으신다. 그런데 아빠는 사무실에서는 정말 담배를 줄이시고 계시는지 걱정된다. 그래서 나는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우리 아빠가 이제 담배와 작별을 하고 엄마와 우리가 정성껏 씻어서 준비한 영양 간식과 과일을 드시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로 하였다.

이런 내마음을 아빠는 아시는지 집에 오시면 과일을 달라고 말씀하신다. 이제는 우리 아빠 뱃속에 까만 연기가 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

"담배야! 이제 우리 아빠 주머니에서 영원히 떠나주렴."

그날이 되면 나는 우리 아빠의 뺨에 감사의 뽀뽀를 해줄 것이다. 내가 아빠에게 뽀뽀할 날을 기다리며... 



자랑스러운 아빠

포항제철동초등학교 3학년 이 은 지

“이상하다. 왜 이리 가슴이 답답하지?”

엄마는 아빠가 담배를 피우는 옆에서 가끔 이런 말을 하셨다. 그럴 때마다 아빠는,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담배만 피우면 꼭 그런 얘길 하네.” 라고 대답하셨다.

아빠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과 어울려 처음 담배를 피웠다고 한다. 그때부터 피우기 시작한 담배는 오랫동안 아빠의 친구가 되었다. 아빠는 담배 갑을 늘 옷 주머니에 소중히 넣고 다니셨다. 그런 아빠를 보면서 나는,

‘아빠들은 원래 담배를 피우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아빠가 2년 전에 담배를 끊으셨다. 오랜 친구와 헤어진 것이다. 그 이유는 엄마 때문이다.

1학년 때였다. 받아쓰기 시험에서 내가 100점을 받은 어느 날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엄마에게 제일 먼저 시험지를 보여 드렸다. 다른 때 같으면 엄마는 내가 100점을 맞으면 매우 기뻐하신다. 그런데 그날은 그냥 조금 웃으실 뿐이었다. 어쩐지 표정이 어두웠다. 저녁 때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오셨다. 나는 아빠에게,

“엄마가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라고 말씀드렸다.

아빠가 엄마에게 무슨 일이나고 물었더니 엄마는 한참만에 조용히 말씀하셨다.

“오늘 병원에 가서 가슴 사진을 찍었는데 폐가 좋지 않답니다.”

의사선생님은 엄마에게 혹시 담배를 피우냐고 물었다고 한다.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하니, 다른 사람이 피

우는 담배 연기를 마셔도 몸에 해롭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빠가 피운 담배가 엄마를 아프게 만든 것이다.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빠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아빠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아빠가 미웠다.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엄마가 아프지 않을 텐데….

그날 이후 아빠는 마당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셨다. 한겨울에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올 때면 아이구 추워라, 하면서도 피우셨다. 끊어지지 끊어지지, 하면서도 계속 피우셨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오늘부터 담배를 아예 피우지 않겠다.”

아빠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우리는 모두 박수를 치며 기뻐하셨다. 정말 아빠는 그날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으셨다. 담배갑을 휴지통에 버리고 재떨이도 치우라고 하셨다.

아빠는 가끔 담배친구가 생각나는 것 같았다. 딱 한대만 피웠으면, 하고 엄마에게 말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엄마는 아빠에게 사탕이나 과자를 드렸다. 아빠 때문에 우리의 과자가 자주 줄어들었다. 그래도 동생과 나는 꼭 참았다.

그리고 아빠는 지금까지 담배를 피우지 않으신다. 가슴이 답답해서 고생을 하던 엄마의 병도 많이 좋아졌다. 나는 엄마를 위해 담배 친구와 헤어진 아빠가 참으로 자랑스롭다. **72**